

‘언니의 감동’ 동생이 있다



이상화

스피드 스케이팅 500m ‘金’
“해냈구나!...2연패 성공에 울컥”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 사상 첫 스피드스케이팅 2연패를 달성하고 또 눈시울을 붉힌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는 “올림픽이 끝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감동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이상화는 12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틀레트 아레나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74초70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우승한 뒤 관중의 환호에 답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2006년 토리노 대회에서는 5위에 그치고 아쉬움의 눈물을,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우승을 차지하고는 환희의 눈물을 흘린 그는 세 번째 올림픽에서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화는 “1차 레이스가 끝난 뒤에도 눈물이 났다”면서 “그동안 훈련해온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정해서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이상화는 1차 레이스에서 37초42, 2차 레이스에서 37초28을 기록했다. 1차 레이스 성적이 조금 부족했다.

그는 “1차 레이스에 조 편성이 좋지 않아 상대 선수가 첫 100m에서 나와 발을 맞춰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레이스에서 다른 선수들의 기록이 좋아서 신경 쓰이긴 했지만 크게 개의치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2차 레이스에서는 흠 잡을 데 없는 경기를 펼친 이상화는 “끝나고 나니 ‘아,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2연패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는데 성공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고 짜릿한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남은 1000m(13일 밤 11시)에서는 메달을 따러 하기보다 축제를 즐기고 싶다”고 미소를 지었다. /연방뉴스

오늘밤 쇼트트랙 500m 출격

심석희

15일·18일 계주 등 다관왕 도전

한국 쇼트트랙의 차세대 여왕 심석희(17·서울 세화여고)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빛 레이스에 도전한다.

심석희는 13일 500m를 비롯해 15일 1500m, 18일 1000m와 3000m 계주에 출전해 다관왕을 노린다.

올림픽 무대가 처음인 심석희는 13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여자 500m 준준결승에 출전해 본격적인 메달 사냥에 나선다.

심석희는 지난 10일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대회 쇼트트랙 여자 500m 예선 마지막 8조에서 44초197의 기록으로 발레리 말타이스(캐나다·44초093)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8강에 진출했다.

준준결승에는 심석희와 함께 박승희(22·화성시청)와 김아람(19·전주제일고)도 진출했다. 박승희는 1조에, 김아람은 3조에, 심석희는 4조에 편성됐다.

심석희는 같은날 열린 3000m 계주에서도 박승희, 공상정(18·유봉여고), 조혜리(28·고양시청)와 함께 출전해 결승 진출에 힘을 보탤다.

심석희는 전이경(38)·진선유(26) 등이 떠난 뒤 끊겼던 여자 쇼트트랙의 계보를 이을 재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1500m 경기에 세 명이나 출전하고도 메달 획득에 실패한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도 13일 1000m와 5000m 계주에 출전해 명예회복에 나선다.

1000m에는 신다운(21·서울시청)과 이한빈(26·성남시청)이 출전하고, 5000m 계주에는 김문재(24·성남시청)·박세영(21·단국대)·신다운·이한빈·이호석(28·고양시청)이 나설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FC 전훈지 日 시즈오키를 가다

골키퍼 ‘무한경쟁’으로 뒷문 단속

시즈오키=김여울기자 wool@

‘무한 경쟁’으로 광주 FC가 뒷문을 걸어잠근다. 20년 만의 폭설로 움츠렸던 광주 FC의 시즈오카 캠프가 12일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선수들은 오전 개인 체력훈련에 이어 오후에는 패시게임과 미니 게임에 하면서 시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빨리진 걸음, 골키퍼들은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른 선수들이 웨이트장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하는 동안 골키퍼들은 알베스 코치의 발길을 쫓아 이리저리 온몸을 던지느라 진을 뒀다.

멀리서 훈련을 지켜보던 남기일 감독대행의 입에서 “애들 죽겠네”라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이었다.

골키퍼는 광주가 1부 승격을 위한 키로 주목하고 있는 자리다. 실수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지는 최후의 보루이자 수비의 시작점. 특수 포지션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경쟁 유도를 위해 남 감독대행은 브라질에서 영입한 알베스 코치에게 골키퍼 조련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시즌 중에도 선수 기용에 대한 역할도 부여할 생각이다.

알베스 코치도 “언제든 세 명의 선수가 100% 전력으로 뛸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 감독님이(누굴 기용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시도록 좋은 선수들을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무한경쟁’의 주인공들은 백전노장 백민철, 패기의 류원우 그리고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막내 제중현 등 3명이다.

15년 차 백민철은 경험이 가장 큰 무기다. 지난 시즌 경남 소속으로 리그 21경기에 출전해 20점을 실점하며 철벽 수비를 자랑했다. 지난해 한 경

기에서 두 번의 페널티 킥을 막으며 1부 리그 주간 MVP에 선정되는 등 경험과 기량에서 한발 앞서있다.

캠프를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른 백민철은 “새 마음가짐으로 하기 위해 머리를 잘랐다. 알베스 코치님이 체력적인 부분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 하체운동을 많이 시키고 많이 움직이게 하신다. 훈련 잘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에서 합류한 류원우는 순발력을 앞세운 스피드가 장점이다. 지난 3일 영입이 이뤄지면서 뒤늦게 광주 유니폼을 입었지만 빠른 속도로 팀에 녹아들고 있다.

류원우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팀에 왔지만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며 잘 적응하고 있다. 몸은 80~90% 정도 올라왔는데 조절을 잘해 100%의 몸으로 시즌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제중현은 191cm의 장신으로 공중볼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 막내지만 눈부신 성장세로 형님들을 위협하고 있다.

제중현은 “지난해 캠프와 달라진 것은 목표다. 지난해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를 뛰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팀 승격도 있고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목표가 생기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알베스 코치가 이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기대하는 것은 골키퍼의 자세다.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고 쫓는 자세. 그들 앞에 서있는 동료들 움직이고 팀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설명이다.

골키퍼들의 ‘무한 경쟁’이 1부 승격을 준비하는 광주의 캠프를 뜨겁게 하고 있다.



금메달을 향하여...

11일(현지시간)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피리트 준준결승에 출전한 앤드류 뉴웰(미국)과 에리크 브란즈달(노르웨이)이 오룬마크 앞을 지나고 있다. 결승전에서는 올라 비겐 히테스티드(노르웨이)가 1위로 골인했다. /연방뉴스

시즌 시작은 ‘달빛동맹’

광주FC, 3월 22일 대구서 첫 경기

광주 FC가 2014시즌 첫 상대로 대구 FC를 만난다. K리그 챌린지 개막전 대전을 포함 2014시즌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3월22일 챌린지 리그의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된다.

선수단을 대폭 개편한 광주는 오후 2시 대구 스타디움에서 대구와 시즌 첫 경기를 갖고 1위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

같은 시간 강릉 종합운동장에서는 변화의 해를 맞은 강원과 안산이 맞붙는다. 강릉 운명을 맡은 강원에게는 챌린지 리그에서 처음 맞는 해, 경찰청은 11일 안산과 연고지 협약을 맺으면서 올 시즌 안산경찰청 프로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뛰게 됐다. 오후 4시에는 역시 챌린지 리그에서 새출발 하는 대전이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FC를 상대한다. 23일 오후 2시에는 부천과 충주(부천 종합운동장), 고양과 안양(고양종합운동장)이 개막전을 갖고 승격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한편 올 시즌 챌린지 리그는 지난 해 대구·대전·강원이 강등되고 상주가 승격되면서 10개팀 체제로 운영된다. 정규 라운드는 11월16일까지 계속되며 최종 1위 팀은 K리그 클래식으로 자동 승격한다. 이후 2~4위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놓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승부를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

윤석민, 볼티모어행?

트위터에 모자 인증샷

윤석민과 볼티모어의 은밀한 만남이 끝났다.

국가대표 우왕 에이스 윤석민(전 KIA)이 12일 트위터를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기정사실화했다. 윤석민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짜잔’이라는 멘트와 함께 볼티모어 모자를 쓴 사진을 공개했다. 현지시간으로 늦은 밤 사진이 공개되면서 볼티모어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볼티모어는 윤석민의 영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팀으로 그동안 윤석민의 에이전트인 보라스 측은 계약기간과 보장금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협상을 진행해왔다. 2월15일을 최종시한으로 보고 막바지 합의에 나섰던 만큼 볼티모어에 대한 분위기가 공개적으로 처음 전해진 점을 고려하면 볼티모어가 윤석민의 새 등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계약 규모는 3년 1500만 달러(음식 포함) 선으로 전망된다. /김여울기자 wool@



광주 FC의 뒷문을 책임질 류원우(왼쪽부터)·백민철·알베스 코치·제중현이 캠프지인 일본 시즈오카 도키노스미가 스포츠 센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